

막으론 여수박람회 유치전

외교력이 좌우한다

북미·중남미 회원국 공략하라

2012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신청국에 대한 실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유치전이 뜨거워졌다. 한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 중대사인 여수 엑스포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관련과 주변 상황을 점검한다.

치밀한 실사 준비로 기선 제압해야 삼성·현대 등 글로벌 기업 협력 절실

◇기선을 제압해야=4월 9~13일 한국을 시작으로 2012년 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에 대한 후보지 실사가 이뤄진다. 실사 결과는 6월 열리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제141차 총회에 보고돼 회원국들의 후보지 결정 투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개최권을 확보하려면 완벽한 준비를 통해 현지 실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BIE는 신청 후보지에 대한 준비상황과 개최 능력, 사후 활용도를 골자로 하는 61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표)

연성이 크다. 폴란드는 최근 신청국이 두 차례 개최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지지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한국과 2파전을 형성했던 모로코는 동일한 이슬람권인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유럽 회원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아시아-대양주 국가를 기본 지지국으로 확보하고 폴란드나 모로코에 치우치지 않는 북미·중남미 국가를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브라질 등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인데다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를 갖고 있어 한국이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신한국 전남도 국제관계자문대사는“캐나다 등 전통 우방 국가들이 올림픽과 월드컵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리에 치른 한국의 국가적 능력을 인정해 상대적으로 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남미 국가들도 한국과 비교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지지세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해당 지역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어우러진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글로벌 기업도 동참해야=역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지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식적인 외교 경로와 함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삼성과 현대, LG 등이 나선다면 박람회 유치 성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제적인 영입을 통해 현지 실정을 꿰뚫을 수 있고 경제협력을 통한 지지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2 박람회 개최지 결정 일정

- 2007년 4~5월 BIE 한국, 모로코, 폴란드 등 신청국 후보지 실사.
- 2007년 6월 프랑스 파리 BIE 제141차 총회 - 실시결과 보고 신청국 지지요청 연설.
- 2007년 12월 전소 미팅, BIE 제142차 총회 -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 결정.

BIE 실사단 주요 조사 내용

- 박람회의 주제 및 개막일과 폐막일
- 박람회 개최 선정 이유
- 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 박람회의 매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박람회 주제와 목표
- 주최국의 입법적, 조직적, 운영적, 재정적 방안
- 박람회 홍보를 위한 광범위한 홍보전략
- 개최도시 및 지역의 전반적 위치 및 장점
- 주제와 관련된 발표, 관변선, 세미나 및 기타 박람회와 관련된 이벤트
- 예산되는 참가자 수와 박람회 부지
- 예산되는 방문객 수 및 그 유형
- 박람회 방문객 및 참가자 스태프를 위한 숙박시설
- 예산, 자원 조달방법, 재정적 결과 등을 포함한 타당성 계획

따라서 정부가 확고한 유치의지를 갖고 총력 외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 중인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박람회 유치전을 벌인다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2010 박람회 후보지 실사를 위한 BIE 실사단이 지난 2002년 3월 여수를 방문, 박람회 현장을 담은 미디어터를 살펴 보고 있는 모습. 여수는 2010년 박람회를 놓고 2002년 12월 모니코에서 열린 BIE 총회에서 중국 상하이와 경쟁했으나 실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與 ‘대통합 신당’ 추진

내달 14일 개최 전대 3개 의제 결정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가 내달 14일 개최될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준비위가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전대 의제안을 잠정 결정한 데다 신당파와 사수파 일각에서 강력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전당대회 전후에 걸쳐 양측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18일 열린우리당 전대위는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합 신당 추진 ▲당 지도부에 신당 방법·절차 등 포괄하는 권한 위임 ▲전대 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 유예 및 당 지도부-국회의원-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 권한 위임 등 3개 항의 전대 의제안을 잠정 결정했다.

준비위는 또한, 내달 전당대회에서 의장 1명과 최고위원 4명 등 지도부 5명을 추대형식으로 선출하되, 17대 대선후보 경선 출마 희망자는 추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합의했다.

준비위는 이같은 전대 안건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비대위의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대통합 신당을 결의하는 형식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는 19일 당 지도부 후보군과 합의추대 방식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오는 21일 비대위에 전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준비위 대변인인 오영식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대 의제의 경우 준비위원 다수가 찬성한 안을 잠정 결정했다”며 “전대 의제 문제는 일단락된 만큼 준비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전대준비위원회에서 원혜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광주 대의원 65% “통합신당 지지”

57% “새 지도부 경선으로 뽑아야”

광주시당, 230명 설문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당원들은 당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 자체 조사결과 광주의 경우 대의원의 65%가 ‘통합신당 창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경선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이 최근 한백리사처에 의뢰해 대의원 23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람직한 당의 진로에 대해 전체의 64.8%가 ‘당내외의 세력 결합을 통한 통합신당 창당’을 지지했다. ‘현 우 리당 정비 통한 유지’에는 17.0%,

‘당명 변경 등 우리당 재창당’에는 12.2%가 찬성했다.
차기 전당대회의 결정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38.7%가 ‘재창당이나 신당 창당 등 당 진로 결정’이라고 답변했고, ‘신임지도부 선출 후 전권 위임’은 28.3%, ‘신임 지도부 선출 대신 통합수임기구 구성’은 27.8%로 나타나 전당대회에서 당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 지도부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7.0%가 ‘경선’을 선택했고 37.4%는 ‘의원총회 합의’로 구성안 제시와 전당대회 추진에 찬성했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소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으나 당원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통합신

당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광주지역에 비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전당대회에 맞춰 광주시당·전남도당 소속 20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시당의 경우 22일 북구, 23일 서구, 24일 광산, 26일 동구, 27일 북갑, 30일 남구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당은 20일 고흥·보성, 영광·함평, 여수갑, 22일 화순·나주, 담양·장성·곡성, 23일 순천, 광양·구례 등이다.
이번 당원 운영위원장 선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출마할 예정이며, 당헌 개정에 따라 통합된 일부 선거구는 경합도 예상된다. <경향신문기자 who@kwangju.co.kr>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부채표 김동원